

복간3호
통권6호

후원회소식

1992.3.30

발행: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110-542) 전화: (02) 763-2606, 745-5604

비가 옵니다....

저는 느끼지 못한채 그냥 잠이 들었는데, 아마도 밤새 비가 내린 모양입니다. 비가 오는 이 시간은, 후덥지근하게 여겨질 만큼 습기가 많고 난로옆에 앉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겨울 내내 지독한 가스를 풍기며 열기를 뿜어내던 고물 연탄난로와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봄이 옵니다. 봄은 어느새 성큼 다가선 듯 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그 전의 해에도 없었던 날, 4년마다 한번씩 겨우 돌아오는 날 29일 입니다. 4년 후에 다시 2월 29일이 돌아온다면 오늘을 기억하렵니다.

나는 그 때 청주여자교도소에 있었다.... 빗방울이 흠뻑리는 토요일 아침에 누군가에서 편지를 썼다... 4년후 오늘을 다시 기억하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었다... 후덥지근 했다.... 뭇이런 식을 기억할 수 있겠지요.

3월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습니다.

지자체 선거때와는 달리 많은 이들이 투표에 꼭 참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압요, 그래야 하고 말고요.

이제까지 투표로 정권을 이겨본 적은 없지만 일단은 국민들의 각정된 의지 표현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거 혁명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쪽이지만.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3대 국회가 굴욕과 불명예로 뒤덮여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갑니다.

14대 국회에 기대를 한번 걸어볼까요. 14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될까요?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도 저는 피식 웃고 있습니다. 일종의 비웃음이죠.

하늘 한구석에 햇살이 비치는 듯 합니다. 비구름이 개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봄에도 가슴 한 구석 희망을 간직하며, 늘 건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29일 청주에서 임수경 올림

민가협양심수후원회

▷ 보 고

◆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

● 92년 1차분 영치금 차입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 이번 3월을 맞아 장기수 92명 전원에게 회원 여러분이 보내주신 회비를 모아 각 2만원씩의 영치금을 차입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사범 양심수 7명에게도 각 2만원씩의 영치금을 함께 차입했습니다.

● 후원 회원 분반 활동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소식지 2호에 보고, 공고해 드렸던 바와 같이 3월 7일 오후 4시에 분반 활동을 원하는 회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분반활동 보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 친목 등반 모임이 4월 12일 관악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월 7일 에 있었던 분반 모임에서 이번 4월달 모임을 회원 친목 등반 모임으로 갖기로 하고 ~~이후 10월에 서울대입구 관악산에 있는 관악산 등반을~~하기로 하였습니다. 준비물은 회비 3,000원에 각자의 도시락 입니다. 많은 회원이 참가하여 서로간의 친분을 교류하였으면 합니다.

● 아산 요양원의 김석형, 조창손 선생님이 요양원을 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지난 12월에 대전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산 요양원으로 거소가 결정되었던 두분의 선생님들이 성공회 "나눔의 집" 신부님과 봉천동 주민회 분들의 도움으로 출소 3개월만에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을 떠나올 때 요양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쉬움과 눈물로 두분의 선생님을 환송해 주셨으며, 현재 두분의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봉천동의 단란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 출소 장기수 선생님 3분이 또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새 기운이 솟아오르는 봄 이전만 출소한 장기수 선생님들의 건강은 날로 우리의 걱정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 20년 이상의 장기간의 옥고를 치르신 이 석림 선생님, 정 종소 선생님, 신광현 선생님이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석림 선생님, 정 종소 선생님은 뇌일혈로 장기간 입원 치료 후에 지금은 집에서 요양중이시며, 신광현 선생님은 협심증으로 심장 혈과 수술후 고대 구로 병원에서 가료중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3분의 선생님이 하루 빨리 쾌차 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합시다.

☆☆ 회원 친목 등반 모임 ☆☆

일 시 : 1992년 4월 12일(日) 오전 10시

장 소 : 서울 대학교 정문 앞

준비물 : 3,000원 , 각자 도시락

함 승신	5,000	김 정현	20,000	최 광돈	10,000	진호엄마	10,000
이 정규	5,000	최 은선	20,000	유 연	10,000	조 상수	5,000
노 영주	5,000	반포침례	50,000	한 신자	6,000	보듬회	70,000
김 양순	10,000	배 성원	10,000	종로그리스	20,000	구 명희	20,000
김 경주	30,000	장 정아	20,000	김 주현	10,000	이 금희	14,000
김 영호	10,000	김 효순	20,000	김 길자	10,000	노 은하	5,000
글 소리	10,000	이 지은	40,000	성 경화	20,000	큰 벚	50,000
곽 선옥	10,000	여 혜숙	10,000	조 남미	5,000	하 정호	20,000
손 영주	30,000	조 운문	20,000	이 혜주	5,000	김 한식	50,000
김 태옥	10,000	정 민규	20,000	권 광일	20,000	강 혜숙	5,000
박 해연	10,000	박 봉순	10,000	주 혜민	10,000	강 경국	10,000
김 준식	20,000	이 동재	5,000	최 은주	10,000	열림책방	50,000
이 남영	8,000	이 미선	5,000	김 은선	10,000	이 호숙	5,000
정 민규	20,000	한 혜영	20,000	강 혜옥	10,000	김 현숙	20,000

※ 혹시 정리과정 이나 인쇄과정에서 누락될 수도 있으니, 누락된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분반활동 모임보고 ○○

지난 3월 7일 오후 4시, 민가협 사무실에서 후원회원들의 분반활동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와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린 분반활동 모임이었습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일도 겸하시라 바쁜 박경수씨, 김순이씨, 동창회모임과 겹쳤지만 먼저 이곳부터 찾아오신 구명희씨, 멀리 이천에서 올라오신 이정규씨, 제일 먼저 도착한 김길자씨, 김혜순씨, 이정옥씨 그리고 청일점 이계원씨가 참석하였습니다.

700여 회원님 중에 겨우 아홉명이 나와 주셨지만 마음 든든한 자리였습니다. 모두들 처음 얼굴을 마주했지만 낯설음이 없었습니다. 아마 모두 그날의 모임에 수십명이 복적거리며 봄빛것을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단출하게 둘러앉아 수인사를 나눌때는 조금 실망한 표정들에 엿보였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도화선이 되어서 앞으로 힘있게 분반활동을 꾸려내자”는 권오현 회장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듣던 회원님들이 환한 웃음으로 답하였습니다.

원래는 5개의 모임 (등산, 편지쓰기, 영화, 노래, 시사토론)을 따로 가지려고 했는데, 등산과 편지쓰기를 빼 놓고는 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논의해 본 결과 편지쓰는 것은 전제로 하고 그때그때마다 모임의 형식을 다르게 가지자고 하였습니다. 등산도 함께 가고, 출소한 장기수 선생님도 찾아뵙고 좋은 영화가 있으면 다음 모임에는 영화도 함께 보는 등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종합적으로 모임의 내용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달 둘째주 일요일을 정기모임의 날로 정하고, 오는 4월 12일 일요일 관악산 등반을 시작으로 분반활동모임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날 열일제끼고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소 회원에게 권하고 싶은 책 소소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무기수 김성만 씀)

후원회원 김혜순 추천

이 책은 분단의 비극과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90여명의 장기복역수 가운데 한사람이며 비전향장기수인 김성만씨의 옥중 글모음집이다.

너무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의 의로운 돌맹이기 되어 외세로부터의 자주독립과 민족통일을 이루고자 했던 그는 1985년 6월 ‘구미유학생사건’과 관련, 간첩혐의로 구속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8년 12월 87년의 민주화 투쟁과 각계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무기로 감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다.

3년 6개월 동안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암담했던 생활을 벗어난 그는 여전히 6척 담장안의 무한한 시간속에 갇혀있지만 치열하게 자기정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 그의 영혼은 민족을 위한 일념으로 몹시 안정된 듯하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있는나다. 죽음 쪽으로 결판이 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삶은 그야말로 힘들다. 사면초가, 풍전등화... 그런 상태이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을 줄로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그렇지 않다. 생을 기대하는 마음이야 간곡하지만 마음의 평온을 잃어버린 상태는 전혀 아니다. 이 갈림길에서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민족해방과 민주정치를 위해 살아오다 이런 경우를 당했다는 사실이다.”(‘죽음 앞에서 다시 확인한 진실’중에서)

비록 몸은 갇혀 있으나 뜻은 살아 숨쉬며 운동하는 한 인간의 철저한 산물인 이책은 정치범으로서 사형수라는 체험과 관점에서 같은 사형을 받았던 일반사형수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 짧은 나이에 운동가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고통속에서도 순간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애착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낙관적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무기로 감형되어 석발할 때의 고동침을 쓴 ‘감형’과 ‘황대권 동지에게’ 쓴 편지에는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진하게 녹아있다.

또한 처음에는 인도적인 차원의 구명운동에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아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며 간첩죄와 무기징역 형벌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이 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어머니의 변화와 함께 그 어머니께 정성들여 효도하지 못하는 아들과의 교감이 무척 아름답게 느껴졌다.

평범한 자연현상 하나에서도 신비로움을 느끼며 물리학자의 꿈을 키우던 착한 학생이었고, 민족통일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남과 북의 민중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자신을 던졌으며 지금은 비전향 장기수만을 수감하는 악명높은 대전교도소에서 외로운 징역살이를 계속하고 있을 김성만씨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그의 분신인 이 책이 널리 읽혀 ‘구미유학생사건’의 진상과 그의 누명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 ‘힘’ 출판사 발행, 민가협 역음, 값 3,600원 >

▶ 방 문 기

☆☆ 아산 요양원을 다녀 와서 — ☆☆

후원회원 조 삼 업 슘

지난 12월에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아산 요양원에 거소가 결정된 김석형(79세, 32년 복역), 조창손(64세, 31년 복역) 선생님을 양심수 후원회의 주선으로 드디어 찾아 뵙기로 하였다.

몇 주전부터 흥분과 긴장으로 기다린 보람으로 어젯 밤에는 푸른색 꿈을 밤 새도록 꾸고 잠은 조금만 설치고서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도착해 보니 웬걸 시간은 15초 밖에 늦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거다.

조바심을 하면서 여기 저기 휘둥휘둥 찾고 있는데 권선생님과 은영이가 안쪽에서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고 잠시 후 하나, 둘씩 봄기운을 잔뜩 물고 나타나서 드디어 모두 모이게 되었다.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차를 타고 아산을 향해 출발했다. 일행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푸른 영상팀 세 명, 권 선생님, 소 선생님, 송 신부님, 그리고 나와 은영이 모두 여덟이다.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아 본격적인 소개를 하고서 서로들의 긴장과 설레임을 확인 하면서 화제는 자연스레 두 분 선생님 이야기로 흘러서 비록 한 번밖에 편지 왕래를 안한 서투른 만남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교환한 편지들을 나누어 읽으면서 서로들 모두 선생님들과의 해후에 대한 흥분과 희망을 애써 감추지 못한 모습들이었다. 하지만 고속 도로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 서울을 빠져 나가는 데만 무려 세시간이나 걸렸고 같은 아산 지역의 신부님 한 분이 합류하셔서 오후 2시반에 아산 요양원에 드디어는 도착을 하였다.

“하늘을 찌를 듯한 흥분” 잠시 몇분간을 사무실에 머물다 곧 선생님들 방으로 향하는데 미처 방에 도달하기도 전에 우리는 만면에 웃음이 함박 핀 조창손 선생님의 따뜻한 손을 직면하였다. 아직 심호흡도 안했는데, 아직 아무 준비가 안되었는데 온 몸으로 맞는 선생님을 직면하다니.....

방에 들어서니 세수를 하신 듯 목에 수건을 두른채 김석형선생님께서도 어쩔줄 몰라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셨다. 그 해맑은 표정, 따스한 웃음, 마치 백년 지기를 맞으시듯 초면인 우리를 풍요롭게 맞아주신데 감격했다.

드디어, 드디어 선생님들을 뵈었구나. 이 기쁨과 감동은 표현 할 글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두 분께서는 많은 손님에 당황하신 눈치셨지만 너무나 기뻐하셨고 조창손 선생님께서 여기저기서 날아오신 의자에 모두 앉게 되어서야 비로소 소개와 인사와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다. 79세이신 김석형 선생님과 63세이신 조창손 선생님은 각각 30년, 31년을 복역하셨고 출소 하신지는 이제 삼개월 남짓 되었다. 두 분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그 동안 걸어오신 모질고 험난했지만 치열하고 웅골찼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한 없이 맑지만 의지 가득한 의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김석형 선생님을 통해서 그동안 양로원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뭉쳐내는데 그리고 주변을 돌보며 사는 삶을 몸소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조창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



고 절로 숙연해 졌고 두분 서로 끔찍히 위하시는 걸 보고 몽글한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이 두 분을 서울로 모셔올 수 있는 가능성의 타진에 있는지라 두분 신부님과 권 선생님은 요양원측과 교섭 진행을 하였고 의외로 진전이 빨리, 그리고 잘 진행이 되었고 서울로 올라가실 수 있다는 권 선생님의 말씀에 두분 선생님께서는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과 하고픈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도 많은 동지들이 계시는 서울이라는 곳에 희망과 기쁨을 보이시는 것 같았다. 김석형 선생님께서는 과거의 교도소에서의 이루 상상 할 수 없는 비인간

적인 처우들, 감옥에서 죽어간 동지들의 이야기, 그리고 석방된 후 조금도 다룰바 없이 자신들을 옴아메는 사회 제도에 대한 울분, 요양원에서의 갑갑한 생활과 심정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자주 말씀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시고 나이 들어 감정이 약해져서 그러신다며 희미한 웃음을 보이셨는데 그 모습을 뵈오면서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함께 사진도 찍고 얘기 나누는중에 요양원의 저녁식사 시간이 되어 우리는 아쉬운 헤어짐을 나눌 수 밖에 없었다. 아직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린 이제 친해졌는데. 헤어짐의 위력을 당해 낼 수가 없어서 우린 낮이 익자마자 다음을 기약하는 긴 이별의 악수를 해야 했고 서로 서로가 선뜻 먼저 손을 놓지 못하고 마냥 애태울 수 밖에 없었다. 진달래가 활짝피면 다시 오라시며 오래도록 머나는 차의 뒷모습으로 그림자처럼 남아서 하염없이 바로보는 애타게 고요한 두 분 모습이 안 보일때가 되어서야 체념하고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돌아서실까 생각하니 가슴 저미도록 애가 타고 마냥 안타까울 뿐 나는 무력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비전향이라는 허울 속에 내가 살아온 날보다 훨씬 많은 날들을 차가운 감옥에 계시는 수많은 장기수 선생님들. 그 분들도 우리에게 의해서 꼭 나오실 날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나와 계시는 분들과의 끝없는 만남으로 그 분들이 의연한 성품들을 배워나가야 하며 서로에 의해서 한 없이 많은 교감을 주고 받아야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더 내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걱정하고 내 조국의 멋진 한을 풀고자 앞장섰고 노력한 것 자체가 죄일 뿐인 한없이 투명한 영혼의 소유자이신 선생님들.

그 분들의 삶을 배우고 직접 느껴야겠다. 그 분들의 맑고 풍요로운 웃음 가득할 그 날은 언제일까? 오늘도 꽃은 피고 봄은 왔건만.....

상념에 젖다 보면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 동안의 나의 삶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고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해 본다. 그러나 조급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 어제의 자신보다는 오늘의 나를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삶을, 그리고 한 치의 나태함도 없고자 하는 치열한 삶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힘찬 웃음을 맘껏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한 삶을, 그리고 백두산으로 신혼 여행을 가기 위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야겠다는 결의에 찬 닳을 올려 본다.

선생님들께로 향한 손아저 오는 그리움을 고이 접어 간직하며.....

1992년 3월 17일

♪♪ 나의 삶, 나의 일터 ♪♪

“전업 주부의 살림살이는 가장 중요한 직업이 아닐까요?”

후원 회원 이 정규 슘

살다보면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를 소개해야 할 일들이 이따금씩 생긴다.

“예상자리 딸이 하나 있는 가정주부 아무개입니다.”

내판에는 제법 진지하게 소개를 해도 그것이 나의 자세한 소개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질 나의 진짜 프로필(?)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그 이상 딱이 “이것이 나의 직업이다” 하고 소개 할 만한 것도 없거니와 가정주부를 능가할 만한 호칭도 없다고 생각한다.

“OO 회사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OO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OO일을 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등등의 소개에는 그 직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질문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물음이 없는데 비해 나의 직업을 소개하고 나면 확실히 그렇지 못한 편이다. 또한 나와 같은 직업을 갖고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나의 동료(?)들의 이야기는 한 술 더뜨는 편이다.

“농지요 뭐” 조금 더 친한 사이가 되고 나면 “지지고 볶지요 뭐” 그리고 뭔가 소일거리를 찾아야겠다고 한다.

“뭔가 다른 일을 해 보시지요”라고 권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놀 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다른 소일거리를 애써 찾을 만치 내가 하고 있는 가정주부의 역할이 그리 만만치도 않거니와 우리사회에서 그 일의 비중이 결코 작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말 사전에서 ‘놀다’를 찾아 보면 열댓가지의 뜻풀이가 나온다. 이 열댓가지의 풀이 중에 주부들의 노동과 삶이 ‘놀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하기에 적당한 풀이는 단 한가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다’라는 말로써 간단하게 소통되는 우리의 삶과 노동은 확실히 비 현실적으로 평가 왜곡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성차별일 것이고 더 나아가 가정 안에서 쌓아지고 터득되는 윤리의 가치와 소박하지만 참된 사랑의 가치가 부재한 사회적 병리의 소산일 것이다. 하지만 가치와 평가가 어떻든 간에 나와 우리 주부들은 잠시도 놀 틈이 없다.

우선 지금의 이 봄만해도 그렇다. 봄은 먼 산등성이나 신작로에 아롱아롱되어 오르는 아지랑이 따라 오는 것 보다는 사람들의 입맛에 옷차림에 먼저 물어 온다. 옷차림은 더욱 밝아지고 가벼워 지고 입맛 까지도 냉장고 안에서 겨우내 들락날락 거리며 군내 풍기던 것들 보다 햇것을 그리워 하게 되고 인간도 자연도 조금은 호들갑스럽게 조금은 색깔있게 변신 하는 계절.

두터운 겨울 옷은 손질하거나 빨아서 넣어두고 얇은 옷 꺼내 다림질 해 두고, 벌이 좋은 날은 겨우내 덮고 잤던 두꺼운 이부자리를 널어 말리고 햇청은 뜯어서 빨아 바짝

말려 다시 시쳐 넣어두고 봄동이나 하루나 열무라도 사다 햇 김치도 담그고 봄나물 된장국 끓여 입맛 없는 식구들에게 밥 한 그릇이나마 맛있게 차려 주어야 한다.

새 학년 맞이한 학교와 아이들. 산적한 교육문제라고 아이들과 교사들 만의 일일까? 봄철 임투 앞두고 노동자이든 관리자이든 고심하는 남편들의 걱정은 남편들 만의 일일까? 더우기 총선, 정치 판이 싫으니 좋으니 관심이 있네 없네 해도 정치판 돌아가는 꼴 따라 하다 못해 우리 밥상까지도 돌아 갔다 왔다 하는 판이니 무관심 할 수도 없고 무책임하게 무관심 해서도 안 될 일이다.

푸성귀 값이라도 안정되어 밭에서 뽑히지도 못한채 그대로 썩혀 버리는 과일 채소가 없어야 농민은 농민대로 우리 서민은 서민대로 최소한 밥 걱정은 안하고 살텐데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제 각각 날개 달고 미친듯이 날뛰니 어느것 하나 마음놓고 넉넉하게 놓아 줄 찬거리 하나 없는 이 지경에 정치판이 취미에 안 맞는다고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놀다'에 심취해 있을 만한 여유가 있을까?

이쯤되고 보면 나 처럼 우리 주부들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여진 숨가쁜 직업도 없을 진데 놀다니....

우리 민족의 염원인 민주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들 특히 2세들의 교육을 가장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빨리 깨어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지친몸 일으켜 세우시며 간절하게 말씀하시던 재야의 한 할아버지 말씀따라 나의 일, 우리 주부들의 일상과 무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나의 신체 내부의 미세한 실핏줄도 아니 내 안에 있는 오물 찌꺼기 조차도 나와 무관한 것 없듯이 나의 일터인 가정은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 단위조직으로 사회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기에 더욱 외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심풀이 정도의 소일거리가 아닌 일을 찾아 할지라도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일상중에 찻잔이 찻잔이 요구되고 있는 수 많은 역할들.

복잡해지기만 했지 희망 보다는 절망만을 더욱 많이 가져다 주는 오늘날 이 부패한 현실 속에서 용기 있는 신념을 가지고 진지한 자세로 나의 삶을 살아 간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치열한 실천적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출소 장기수 선생님을 찾아서

☆☆ 열 아홉살 빨치산 소대장 임방규 선생님 ☆☆

편집부원 홍 전영 슌

원하지 않는 죽음, 더구나 찬란한 젊음을 소유하고 있는 나이에 읊죄어오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나는 과연 생애의 어느 부분을 남기고 싶어할까?

임방규선생님이 1953년 만 20세에 사형을 언도받고, 생사를 함께 해 온 동지들의 죽음을 체험하며 절실하게 세상에 남기고 싶은 것은 고귀한 인간들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민이 전사에게 준 따뜻한 사랑이며, 준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순결하게 빛나는 동지이라고 감히 말하겠다.

경동시장 한켠에 조촐하게 자리한 민중탕제원은 기나긴 옥고를 치루고 출소하신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건강한 삶을 꾸려가고 있는 곳이다. 그 곳에서 선생님을 만나 뵈게 된 것은 후원회원들을 대신해서 누린 큰 기쁨이었다.

“빨치산들이 비정하고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이 많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을 적에도 거 별 내용도 없는 영화였는데도 아이가 어머니와 헤어져 우는 사람이 나오면 모두들 눈이 빨개지도록 우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련한 처지 때문에... 참! 눈물들도 많지요. 정이 많은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열아홉살에 입산해서, 어린 나이에 과분한 대우와 직책을 받았다는 임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때의 일을 들려 주셨다.

“입산 초기 입식 성숙면 오봉리에 주둔할 때 었는데 모두들 ‘아버이’라고 부르던 분이 있었어요. 왜 동네에서 사람 죽으면 부고 돌리고 었도 하면서 굶은 일을 다맡아 마웁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분도 그래서 나이는 쉰 남짓 되었지만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하대를 당하는 천인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빨치산들 중에는 학생도 있고 꽤 잘사는 집의 자제도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그분을 동네 머슴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 준 것은 평생 처음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한번은 입소대장이 가슴에 담이 들어 고생을 하는데 ‘아버이’가 한지에 송진 녹인 것을 갖고 왔다. 고맙게 여기고 붙이고 다녔는데도 낫지 않아서 걱정을 하던 중 아버이가 찾아와 자기집에 가자고 했다. 집에 들어서자 한약을 다리는 약탕관에서 김이 나고 있었고 부인도 반색을 하며 쫓아 나왔다. 밥상을 차려 오는데 조기 구운것까지 있어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한다. 부인이 말하길 ‘아버이’가 그날 새벽에 아무 소리 말고 쌀 한말만 내라고 해서 주었더니 입실 읍내를 다녀왔다고 한다. 쌀을 팔아 한약 짓고 남은 돈으로는 귀한 굴비까지 사왔다 한다. 남편이 원래 과묵하고 좋은 일을 해도 아무에게 얘기하지 않는 성품이라 믿었던 것이다.

빨치산이 주둔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그 당시 죽음을 무릅쓰

위험한 일이었다. 정보를 얻으러 나오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들키면 곧 총살감이었다.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아는 임소대장은 얘기를 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복받쳐 올랐다. 인민에게 자신의 존재가 소중히 여겨지고 있으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자각한 기쁨, 그것은 목메이는 감동이었다.

사형수가 되어 지나온 생의 한 순간 한 순간을 떠올릴 때 '아버이'가 베풀어준 따스함은 임선생님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200명이 붙잡혔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여섯 밖에 안됐지요. 휴전이 될때 우리는 다 살아나가는 줄 알았지. 제네바 협정에 의해 포로들이 생환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걸 저쪽에서도 알았는지 하룻밤 사이에 50명씩 총살시키곤 했어요”

당시 임 선생님은 국중기라는 동지와 함께 있었다. 그 사람은 애인과 함께 입산한 빨치산이었는데 애인하고는 소속한 부대가 달라 산에 있을때 가끔 만났다고 한다.

어느날 동료들이 두 사람만 있을 수 있게 자리를 피해 주었다. 달이 비치는 편편한 바위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여성이 불연듯 애인의 손으로 자기 젖가슴을 만지게 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포탄에 맞아 젖이 거의 없어지고 움푹패인 상처자국만 만져졌다.

“이렇게 되었어도 나중에 우리가 자식 낳고 살 수 있을까요?”

국중기씨는 섬찟 놀라서 손을 뻗곤 했으나 애인의 말을 듣고서 가만히 보듬고 있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렇게 살아 무엇하나? 차라리 애인과 함께 자수하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임방규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동지들이 서로 숨김없이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볼 때 었다. 국중기씨는 비록 순간이기는 했지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해 자책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반성했다고 한다.

그후 국중기씨는 안타깝게도 총살형의 죽임을 당했고 임선생님은 3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살아 남은 사람이 꼭 세상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어떻게 살다 죽어 갔는지 말입니다. 그건 의무지요.”

임선생님은 민중탕재원에서 일을 하시는 한편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영예로운 죽음의 길을 걸어간 동지들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중이다.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는 데 당신마저 그날의 항쟁과, 이름없이 이땅 역사의 거름이 된 사람들의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 어무니가 올라오셨어요. 입던 옷 그대로 오셨길래 개끔하니 갇아입고 오시제 허니까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오셨다네. 허허 자. 이쁜 허고 다들 저녁 묵으러 일어서지.”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말씀하실때 지은 푸근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나 답답하게 말씀하시는 어조는 차압당한 시간에 의해 이미 선생님의 온몸에 체화된 역사성이 아닐런지.... 그래서 그 슬픔이 한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분단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도 불 불듯이 옮겨져 묵직한 덩어리를 가슴에 간직하게 하였다.

가장 따스한 인간, 고결한 품성을 지닌 사람을 만나본 기쁨은 오래도록 나를 뿌듯하게 할 것이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양심수 석방사업 적극지원
2. 장기복역 양심수 후원사업 (정기적 영치금 발송, 책자, 영치품 지원)
3. 시국사범 후원사업 (비정기적 영치금 발송)
4. 석방된 장기복역 양심수의 생계지원, 생계타전 마련사업
(구로동 '민남의 집' 운영)
5. 장기복역 양심수, 석방자 중 무의탁자와 지매결연 추진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 일 은 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서울신탁은행 15701-89000531 (양심수후원회)
국 민 은 행 006-01-0601-098 (양심수후원회)
농 협 053-01-112692 (양심수후원회)



농민회소식

보내는이: 민가협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청신2동 592-7 (110-542)

받는이: